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습지의 가치, 미래 세대에 알리다

고창서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

'함께습지 페스타' 운영
방문객들에 볼거리 제공

전북자치도, 고창갯벌
위상 홍보 보전방안 모색

세계자연유산인 고창 람사르갯벌의 세계적 가치를 미래 세대에 알리기 위한 기념식이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제23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을 22일 람사르갯벌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심덕섭 고창군수, 윤준병 국회의원,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기웅 서천군수,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과 지역주민을 비롯한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는 습지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고창 '동리창극단'의 축하공연, 염생식물 식재 퍼포먼스가 진행돼 습지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보전의를 전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는 관내 학생과 어린이집 원생 200여명이 찾았다.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홍보캠페인·업사이클링 체험·환경교육 등 20여개의 생태관광 체험부스가 준비된 '함께습지 페스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제23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가 22일 고창에서 열린 가운데,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심덕섭 고창군수, 윤준병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염생식물 식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가 운영돼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람사르사무국은 지구 환경과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매년 2월 2일을 세계 습지의 날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2월이 동절기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번갈아 가며 4~5월에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고창 갯벌의 위상을 홍보해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미래세대에 알

리고, 보전·보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2024년 세계습지의 날 기념식을 통해 고창갯벌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세대에 습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 습지의 날이라는 뜻깊은 기념행사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사회와 갯벌의 공존을 도모하며 미래세대에 이 소중한 유산을 고

스란히 물려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연안습지인 '고창갯벌', 내륙습지인 '운곡습지'와 '인천강하구' 총 3곳의 습지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고창갯벌은 멸종위기종 포함 164종의 조류가 관찰되는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이자, 생태계의 보고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연유산인 '한국의 갯벌'로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만호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도내 상업계고 학생 성장 기회 제공한다

제21회 전북상업경진대회 23일 개최
도내 10개 학교 300여명 참여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일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에서 '제21회 전북상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상업경진대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상업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10개 학교에서 3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진 종목은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실무, 비즈니스영어, ERP, 금융실무,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조주), 세무실무, 취

업설계프레젠테이션 등 10개다. 또 경연 종목은 창업 동아리 엑스포와 경제끝단별 2개로, 전공 관련 대회로 치러진다.

입상자는 10월 7~9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상업경진대회는 상업계고 학생들이 다양한 과제와 평가를 통해 역량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 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1회 전북포럼' 사전 등록 개시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서 내달 11일까지 등록 가능
1부 행사·세션 참석 선택... 소정의 기념품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고, 전북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의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되는 '제1회 전북포럼(2024 Jeonbuk State Forum, JSF)'의 사전 등록자를 2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6월 25일 익산시 완광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국내 외 농생명 분야 전문가를 발제자로 내세워 글로벌 농생명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탈리아,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4개국의 국외 연사를 초청했다.

먼저 빈센트 마틴 FAO UN본부 혁신국장과 칼리더스 셰티 노스다코타주립대 농업 국제연구소장이 특별 연사로 나선다. 이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도 기조 강연 연사로 지역 농식품

산업의 미래 비전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농생명 산업 혁신의 대주제 아래 1부는 개회식과 특별·기조 연설로 진행되며, 2부는 주제별로 △세션1 농식품 Value Chain 혁신 △세션2 농생명 산업 혁신체계 구축으로 동시에 2개 세션을 구성했다.

특히, 22일부터 진행되는 사전 등록 신청자는 1부 행사와 세션 참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럼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회의와 함께 도·익산시·전북연·완광대 4개 기관 실무진 중심 준비단 회의가 매주 목요일 열리고 있다.

6개국 대사, 외신기자 등을 포함 전 날 환영 리셉션과 도내 농생명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 의대도 학칙개정안 부결... 교수평의회 과반이상 반대

"정부 일방적 의대증원 결정, 대학 자율성 훼손 우려"
대학, 평의회 재심의 요청하거나 학무회의 열고 재논의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문제점, 다시 한번 인식되길"

정부의 의대 증원 증원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북대학교도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2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전북대학교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전북대는 지난 10일 교육부 정책에 따라 모집정원을 142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1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날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47명의 교수로 구성된 평의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의견을 가진 36명의 평의회 위원 중 과반 이상이 이번 학칙개정안에 반대했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결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

다"는 우려때문이다.

전북대는 평의회 재심을 요청하거나 학무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대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외부의 간섭과 지시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켰다고 생각한다"며 "교수평의회 부결을 시작으로 의대 증원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